

Q방법론을 활용한 중등예비체육교사의 육상운동에 대한 인식 연구

유영설
수원농생명과학고등학교 교사

Analysis on the Secondary Pre-Physical Education Teacher's Recognition for the Learning Athletics Using the Q Methodology

Young-Seol Yu
Teacher, Suwon High School for Agricultural Science

요 약 본 연구는 육상운동에 대한 중등예비체육교사의 주관성을 탐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은 D시의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2학년 학부생과 교육대학원생으로 총 28명으로 하였다. 연구방법은 인간의 주관적 인식을 탐색할 수 있는 Q방법론을 활용하였다. Q연구 과정을 통해 얻은 자료는 QUANL 프로그램을 통해 Q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총 4개의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제1유형은, 육상운동은 성취감을 느끼게 해 주고 리듬감이 중요하며 도전의식의 가치를 강조하여 '교육적 가치 인식형'으로 명명하였다. 제2유형은, 육상운동은 체력향상을 위한 트레이닝과 재미있는 보조운동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보조 활동 중요성 인식형'으로 명명하였다. 제3유형은, 육상운동은 복잡한 동작 구성에 따른 기능 습득의 어려움과 높은 집중력의 요구 그리고 경험 부족을 강조하여 '기능 습득 곤란 인식형'으로 명명하였다. 제4유형은, 육상운동은 모든 활동과 운동의 기초이고 도전의식을 갖게 하며 모든 건강체력요소를 포함하는 운동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기초 운동 가치 인식형'으로 명명하였다.

주제어 : 육상운동, 중등예비체육교사, 주관성, Q-방법론, 인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recognition of secondary pre-physical education teachers' recognition for the learning athletics using Q methodology. P-sample was composed of 28 pre-secondary P-E teachers. The selected Q samples were arranged in the normal distribution form.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factor analysis through varimax rotation using QUANL PC program. This study found four types of recognition on learning athletics. Type I is defined 'the type of recognition for education value.' Type II is defined 'the type of emphasizing assistant activities.' Type III is defined 'the type of an appeal difficulty to learn athletics skill.' Type IV is defined 'the type of emphasizing the basic movement value.' Based of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implications and direction to future research on athletics activities are suggested.

Key Words : Athletics, Secondary Pre-Physical Education Teachers, Subjectivity, Q-methodology, Recognition

*Corresponding Author : Young-seol, Yu(yssports4u@hanmail.net)

Received March 9, 2020

Accepted April 20, 2020

Revised March 31, 2020

Published April 28, 2020

1. 서론

육상운동은 인간의 원초적 활동인 달리고 뛸뛰고 던지는 등의 움직임으로 구성된다. 또한, 육상운동은 자신의 신체만을 이용하거나 신체와 물체 또는 신체와 도구를 이용하는 등 스포츠의 기본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1,2]. 이러한 정의는 육상운동의 동역학적 구성요소를 대상으로 그 중요성을 설명한다. 이와 더불어 육상운동에서 걷기나 달리기는 생명 유지와 신체 조성의 균형적 발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활동[2]으로 간주 되면서 육상운동의 생리학적 중요성 또한 강조된다. 이러한 이유로 육상운동은 인간 생활과 스포츠 활동으로의 전이가(轉移價)가 매우 높은 종목[3] 중의 하나로 여겨져 왔다. 따라서 육상운동의 기능적 중요성으로 인해 체육 관련 학계에서 육상운동은 지속적인 관심의 대상으로 여겨져 왔다. 육상운동과 관련한 선행연구는 육상선수들을 대상으로 경기력 향상에 초점을 맞춘 육상운동의 역학적[4-6]·생리학적[7,8]·심리학적[9,10] 측면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또한, 학교의 교육적 측면에서 보면, 육상운동은 자신의 신체 능력의 한계에 도전하는 활동으로서 도전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교육적으로 매우 중요한 활동이다. 자신의 신체적·정신적 능력에 맞는 도전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여 목표를 달성했을 때 얻는 성취감은 인간의 도전적 욕구를 자극하는데 큰 의미를 갖는다[1]. 이러한 육상운동이 갖는 도전 가치의 중요성으로 인해 가치 교육을 중요하게 여기는 현재의 학교 교육과정에서 육상운동은 중요한 교과 내용 중의 하나로 다루어져 왔다. 따라서 체육을 지도해야 하는 교사들에게 육상운동은 습득해야 할 필수 운동 종목 중의 하나로 간주 된다. 이를 반영하듯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범대학 체육교육과나 교육대학에서 육상운동 또는 육상경기를 전공 필수 강좌로 개설하여 운영한다.

그러나 이러한 육상운동의 교육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예비체육교사들에게 육상운동은 선택하기에 부담스러운 과목 중의 하나로 여겨진다. 육상운동은 기본적으로 기록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운동으로서, 주로 신체 중심이동을 통해 자신의 최고 기록에 도전하기 때문에 근력과 근지구력 그리고 신체 협응력을 요구한다. 물론, 육상운동이 다양한 종목으로 구성됨에 따라 각 종목에서 요구하는 체력요소의 중요도는 다를 수 있다. 단거리에서 근지구력과 마라톤에서 심폐지구력은 다른 종목에 비해 매우 중요한 체력요소로 여겨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육상운동에서 필요로 하는 기본 체력요소는 습득하는데 일정한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는 데 이를 학생들은 단순하고 기계적 반복 학습으로 여기게 된다[1]. 신체 협응력은 개인의 운동신경 발달 정도에 따라 동작을 습득하는데 많은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또한, 육상운동 특성상 수업이 주로 야외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날씨 및 기온 등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11]. 이러한 이유로 학생들은 육상운동을 기피 하는 종목의 하나로 간주하게 된다.

학교 교육과정에서 육상운동이 중요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수업 참여에 어려움을 표현하고 있는 육상수업에 대하여 학생 참여도를 높이고 수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는 학계에서 관심 주제로 여겨져 왔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주제는 심리기술훈련을 통한 참여 학생들의 내적 변화[1]와 육상수업 스트레스 요인과 체육수업 내적 동기에 미치는 영향[12], 육상수업과 운동 상해[13], 육상수업의 재미 촉진 및 저해 요인[11] 그리고 육상 전공 실기 교수의 전문성 형성과 유형에 관한 연구[14]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선행연구는 학생들이 육상수업에서 갖게 되는 재미 요인과 스트레스 요인 그리고 심리기술훈련을 통한 학생들의 내적 동기 향상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 육상수업을 담당하는 교수자에게 매우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특히, 육상수업에 심리기술훈련을 적용한 권성호, 성창훈[1]의 연구는 육상수업의 효율적 운영과 육상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심리적 스트레스를 줄여 학생 참여도를 증진 시키고 육상수업에 심리학적 요소를 적용함으로써 융합적 수업의 가능성 및 방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연구로 여겨진다. 그러나 선행연구의 대부분이 참여 학생 전체를 하나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다양한 조건에 의해 영향을 받는 수업 현상에 대한 개인의 주관성을 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학생 각 개인이 받는 수업 스트레스나 수업 상황에서의 심리적 상태는 행위자 개인의 주관성을 배제하고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동일한 수업 환경에서도 개인의 특성에 따라 다른 심리적 태도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육상수업에서 수업내용과 수업 환경 그리고 교수자 등의 요소는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 개인의 운동능력과 운동경험 그리고 심리적 특성 등에 따라 다양한 반응을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수업 상황에 대한 참여자의 다양한 주관적인 태도에 기반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는 수업 참여자의 보다 세분화된 태도의 탐색을 통해 학습자를 이해하는 데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육상운동에 대한 예비체육교

사들의 주관성을 탐색하는 데 있다. 이는 예비체육교사들이 육상수업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지를 파악하고 이를 유형화하여 참여자들의 심리적 태도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고자 함이다. 이를 위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육상운동에 대한 예비체육교사의 주관성은 어떻게 유형화되는가? 둘째, 육상운동에 대한 예비체육교사의 인식 유형별 특징 및 시사점은 무엇인가?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육상운동에 대한 중등예비체육교사의 주관성을 탐색하기 위해 Q방법론을 활용하였다. Q방법론은 사회 현상에 대한 인간의 가치, 태도, 신념 등의 주관성을 측정하고자 스티븐슨(William Stephenson)이 창안하였다[15]. Q방법론은 연구대상자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주어진 자극을 구분하고 순서를 정하는 자결적 정의(operational definition) 과정을 거친다. 이러한 과정은 주제에 대한 개인의 인식을 나타냄으로써 궁극적으로 인식의 모형화에 이르는데, 이러한 결과는 드러나지 않았던 주제에 대한 개인의 인식을 분명하게 드러나게 해 준다[16]. 육상운동에 대한 예비체육교사들의 주관성은 온전히 연구 참여자들의 주관적 태도에 따른다. 따라서 인간의 주관성을 탐색할 수 있는 Q방법론의 활용은 본 연구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매우 적합한 방법으로 여겨진다.

2.1 연구대상

Q방법론에서 연구대상은 P표본(P-Sample)을 말한다. Q방법론은 자극들이 갖는 주제에 대한 개인(P-Sample) 내의 의미의 중요성에 따른 차이를 다루기 때문에 소표본 이론(Small-Sample Doctrine)에 근거한다[18]. 본 연구는 D시에 위치한 C대학의 체육교육을 전공하고 있는 학부생 17명과 교육대학원생 11명으로 2019년 1학기 및 여름학기 수강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2.2 연구절차

2.2.1 Q모집단과 Q표본(진술문) 추출

Q모집단은 육상운동에 대한 예비체육교사들의 인식의 총합체를 말한다. Q모집단은 체육교육을 전공하고 있는 예비체육교사 17명을 대상으로 개방형 질문을 통해 수집하였다. 개방형 질문은 2018학년도 2학기 육상수업

을 수강한 학부생을 대상으로 육상운동 또는 육상수업에 대한 인식을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하였다. 수집된 Q모집단은 Q방법론을 활용하여 꾸준히 연구활동을 하고 있는 대학교수 1인과 본 연구자가 진술문의 중요도와 내용 타당도 등 연구 목적을 고려하여 Table 1과 같이 최종 30개의 Q표본(진술문)을 추출하였다.

Table 1. Q-Sample

Statements
1. Athletics is a variety of events and can not be done well.
2. Athletics is a record-type sport that gives you a sense of challenge.
3. Athletics is the basis of all activities & exercise.
4. The speed of learning in athletics vary depending of the individual's function.
5. Athletics is a lot of physical fitness.
6. Athletics is an activity with low risk of injury.
7. Athletics is labor.
8. Athletics is good for losing weight.
9. After the athletics, I feel proud to have done something meaningful.
10. Athletics is a challenge to the limitations of one's physical fitness.
11. Athletics is a fight against oneself.
12. Athletics requires a high degree of concentration.
13. I have never learned athletics at school.
14. Athletics makes you feel fulfilled.
15. Athletics is difficult to subdivide tasks.
16. Athletics is complicated and difficult to acquire.
17. Athletics requires training to improve physical fitness.
18. A sense of rhythm is an important factor in learning athletics.
19. Athletics requires fun assisting exercise.
20. Development of challenge tasks in athletics is important.
21. It is a priority to enjoy athletics rather than to do well.
22. Understanding of principle is more important than acquiring skill in athletics classes.
23. Activities for health life are more important than acquiring professional skills in athletics classes.
24. Athletics contain all health and fitness factors.
25. Athletics requires patience.
26. If there is study on athletics, I will participate.
27. Athletics is an important subject in teacher-would-be education.
28. Athletics has fun with shortening record.
29. The cooperation heart can be cultivated through relay.
30. It is important to develop tasks for motivating students in athletics classes.

2.2.2 Q-분류(Q-sorting)

Q분류(Q-sorting)는 일정한 방법에 따라 연구대상자가 Q표본을 강제분류(forced-distribution)하는 과정이다. 즉, 설문지를 작성하는 과정이다. 본 연구에서 Q분류는 2019년 5월 21일과 7월 31일에 학부생과 교육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본 연구자가 직접 연구의 목적 등을 설명한 후 설문지를 배부하고 이를 수거하였다. 따라서 설문 전에 Q분류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을 하여 설문 대상자들의 이해를 도모하였다. 연구대상자 28명은 30개의 Q표본을 상대적인 의미와 중요도를 고려하여 분포틀에 맞추어 분류하였다(Fig. 1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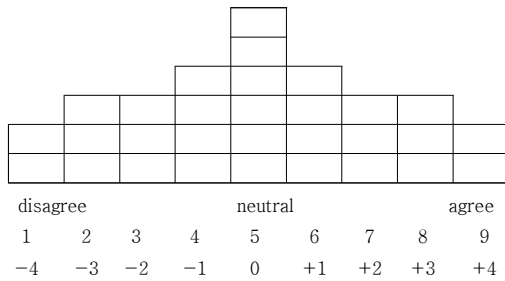


Fig. 1. Q-Sample Distribution Structure

2.3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자료 분석은 Q분포도에서 가장 부정하는 것(-4)을 1점으로 시작하여 중립인 것(0)에 5점 그리고 가장 긍정하는 것(+4)에 9점을 부여하여 점수화하였다. 부여된 점수를 진술문 번호순으로 코딩(coding)하여 QUANL 통계프로그램을 통해 주성분요인분석(principal component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요인의 회전은 배리맥스회전(varimax rotation)방법을 사용하였다. 요인추출은 각 유형의 고유값(eigen-value)이 1.00 이상을 기준으로 하여 가장 이상적이라고 판단되는 모형을 최종적으로 선택하였다.

3. 연구결과

3.1 육상운동에 대한 중등예비체육교사의 인식 유형화 결과

육상운동에 대한 중등예비체육교사의 인식은 4개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각 유형별 고유값(Eigen Value)은 Table 2와 같이 7.8790, 3.2842, 2.2590 순이며, 누적 변량은 0.4794로 약 48%의 설명력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3개 요인밖에 나타나지 않은 것은 4유형은 3유형에서 부적(負的)으로 걸려 있는 P표본을 모아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Table 2. Eigen Value and Variances

	I	II	III
Eigen Value	7.8790	3.2842	2.2590
Variance(%)	.2814	.1173	.0807
Cumulative Variance(%)	.2814	.3987	.4794

유형 간의 상관계수는 Table 3과 같이 <유형 I>과 <유형 II>는 .289, <유형 I>과 <유형 III>은 .372, <유형 I>과 <유형 IV>는 .227 그리고 <유형 II>와 <유형 III>은

.013, <유형 II>와 <유형 IV>은 .281 그리고 <유형 III>과 <유형 IV>은 -.435로 나타났다.

Table 3. Correlations between Factors

Factors	I	II	III	IV
I	1.000	.289	.372	.227
II	-	1.000	.013	.281
III	-	-	1.000	-.435
IV	-	-	-	1.000

Table 4는 각 유형별 연구대상자(P표본)의 인자가중치(factor weight)와 개인적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인자가중치는 연구대상자의 유형성 지표로서 인자가중치가 높을수록 그 유형의 전형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탐색된 4개의 유형별 응답자의 개인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유형 I은 총 16명 중 남자 14명, 여자 2명이고 육상수업 경험에서 유경험자가 14명, 무경험자가 2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육상운동에 대한 자신감은 높은 수준이 9명, 중간 수준이 6명 그리고 낮은 수준이 1명으로 나타났다. 운동기능은 높은 수준이 11명, 중간 수준이 5명으로 나타났다. 유형 II는 총 7명으로 그중 남자가 4명, 여자가 3명이고 육상수업 경험에서 유경험자가 4명, 무경험자가 3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육상운동에 대한 자신감은 높은 수준이 2명, 중간 수준이 5명으로 나타났다. 운동기능은 중간 수준이 6명, 낮은 수준이 1명으로 나타났다. 유형 III은 총 3명으로 그중 남자가 2명, 여자가 1명이고 육상수업 경험에서 유경험자가 1명, 무경험자가 2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육상운동에 대한 자신감은 중간 수준이 2명, 낮은 수준이 1명으로 나타났다. 운동기능은 높은 수준이 1명, 중간 수준이 2명으로 나타났다. 유형 IV는 총 2명이 모두 여자이고, 육상수업 경험에서 유경험자가 1명, 무경험자가 1명 그리고 육상운동에 대한 자신감과 운동기능은 2명 모두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다.

3.2 육상운동에 대한 중등예비체육교사의 인식 유형별 특성

육상운동에 대한 중등예비체육교사의 유형별 특성은 각 유형별 표준점수 ± 1.00 이상인 Q진술문과 각 유형별 인자가중치가 높은 연구대상자의 진술문을 토대로 각 유형을 분석하였다.

3.2.1 제1유형: 교육적 가치 인식형

Table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제1유형에 속한 예비체육교사들의 육상운동에 대한 가장 높은 긍정적인 인식은

Table 4. Factor Loadings and the P-Sample

Factors	ID	Loadings	Gender	Age	Experience of athletics class	Confidence for athletics	Motor skill level
Factor I (N=16)	13	2.9663	M	20	2	High	High
	1	1.7564	M	28	1	High	High
	11	1.6930	M	28	1	High	Middle
	10	1.3084	M	27	1	High	High
	28	1.2905	M	21	0	Middle	Middle
	4	1.2277	M	30	4	Middle	High
	21	1.0652	M	20	2	High	High
	18	.9848	M	19	2	Middle	Middle
	12	.9438	M	20	2	High	High
	23	.9377	M	20	2	Middle	High
	7	.9041	M	27	1	Middle	Middle
	17	.8472	M	21	2	High	High
	24	.8007	F	19	2	Low	Middle
	20	.5804	F	19	0	High	High
	19	.5417	M	20	2	High	High
	3	.4503	M	42	1	Middle	High
Factor II (N=7)	9	1.9058	M	27	1	Middle	Middle
	26	1.3086	F	21	0	High	Middle
	16	1.0668	F	19	0	Middle	Middle
	5	.8955	M	27	1	Middle	Middle
	2	.6543	M	26	2	Middle	Middle
	8	.5307	M	29	0	High	Middle
	15	.5205	F	19	2	Middle	Low
Factor III (N=3)	14	1.1019	F	19	0	Middle	Middle
	6	.5009	M	29	0	Middle	High
	27	.3551	M	21	2	Low	Middle
Factor IV (N=2)	25	1.3878	F	19	2	Middle	Middle
	22	.9484	F	19	0	Middle	Middle

육상운동은 성취감을 느끼게 한다(Z=1.52)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육상운동은 리듬감(협응력)이 중요하다(Z=1.40), 육상운동은 개인의 기능에 따라 학습 속도가 다르다(Z=1.34), 육상운동은 기록형 스포츠로서 도전의식을 갖게 한다(Z=1.2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다른 유형에 비해 가장 높은 부정적 인식은 육상운동은 노동이다(Z=-2.41)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육상운동은 부상의 위험성이 낮은 활동이다(Z=-2.26) 그리고 육상수업은 전문기술의 습득보다 건강생활을 위한 활동이 중요하다(Z=-2.08)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유형에 속한 응답자들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

Table 5. Descending Array of Z-scores and Factor I

Q-Statement	Z-Score
14. Athletics makes you feel fulfilled	1.52
18. A sense of rhythm is an important factor in learning athletics	1.40
4. The speed of learning in athletics varies depending of the individual's function	1.34
2. Athletics is a record-type sport that gives you a sense of challenge.	1.23
3. Athletics is the basis of all activities & exercise	1.20
11. Athletics is a fight against oneself	1.06
23. Activities for health life are more important than acquiring skill in athletics classes.	-2.08
6. Athletics is an activity with low risk of injury	-2.26
7. Athletics is labor	-2.41

“육상운동은 기록이라는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다 보니 (기록이) 향상됨에 따라 성취감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기록에 의한 스포츠라 기록을 앞당기기 위한 도전의식을 일으킨다고 생각합니다. 육상운동은 신체활동으로서 모든 움직임의 기초가 된다고 생각하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따라서 습득하고 발휘되는 게 다르다고 봅니다(P1)”

“육상운동은 신체기능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학습속도에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육상운동은 기록을 뛰어넘어 갱신될 때 얻어지는 흥미와 만족감이 큰 운동이고, 목표를 설정하고 성취할 때 의미 있는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지 간의 협응을 통해 더 나은 기록과 도전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P11)”

따라서 제1유형은 육상운동은 성취감 및 도전정신, 기초운동, 인내 등의 요소 향상을 위한 교육으로서의 가치를 강조하는 진술문에 두드러진 반응을 나타내어 ‘교육적 가치 인식형’으로 명명하였다.

3.2.2 제2유형: 보조활동 중요성 인식형

Table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제2유형에 속한 중등예비체육교사들의 육상운동에 대한 가장 높은 긍정적인 인

식은 육상운동은 체력향상을 위한 트레이닝(훈련)을 필요로 한다($Z=2.07$)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육상운동은 재미있는 보조(보강)운동이 필요하다($Z=1.89$), 육상운동은 종목이 다양해서 다 잘할 수는 없다($Z=1.31$), 그리고 육상운동은 자신과의 싸움이다($Z=1.0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다른 유형에 비해 가장 높은 부정적 인식은 육상운동은 부상의 위험성이 낮은 활동이다($Z=-1.95$)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육상운동은 하고 나면 뭔가 의미 있는 활동을 한 것 같아 뿌듯하다($Z=-1.65$), 육상수업은 전문기술의 습득보다 건강생활을 위한 활동이 중요하다($Z=-1.53$) 그리고 육상운동은 성취감을 느끼게 한다($Z=-1.2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유형에 속한 응답자들의 진술을 보면 다음과 같다.

“육상운동은 근력 향상을 위한 웨이트트레이닝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고 지루한 느낌의 육상훈련이기 때문에 획기적이고 재미있는 보강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육상은 필드와 트랙 종목으로 나누어봤을 때 사용하는 근육들이 달라 모든 종목을 잘할 수 있진 않다고 봐요. 또한, 육상운동은 개인종목과 기록단축을 위한 운동이기 때문에 자신과의 싸움, 인내력이 중요한 요소로 생각합니다.(P9)”

“육상운동은 기초능력이 뒷받침돼야 종목을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조운동은 지겨우면 흥미가 떨어지기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해요. 육상은 종목도 많고 종목별로 요구되는 기능과 신체가 다르기 때문에 모든 종목을 다 잘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P26)”

따라서 제2유형은 육상운동은 체력향상을 위한 훈련 및 재미를 가미한 보조(강) 활동 그리고 인내심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진술문에 두드러진 긍정적 반응을 나타내어 ‘보조활동 중요성 인식형’으로 명명하였다.

Table 6. Descending Array of Z-scores and Factor II

Q-Statement	Z-Score
17. Athletics requires training to improve physical fitness	2.07
19. Athletics requires fun assisting exercise	1.89
1. Athletics is a variety of events & can not be done well	1.31
11. Athletics is a fight against oneself	1.06
26. If there is study on athletics, I will participate	-1.12
14. Athletics makes you feel fulfilled	-1.22
16. Athletics is complicated & difficult to acquire	-1.29
23. Activities for health life are more important than acquiring professional skills in athletics classes	-1.53
9. After the athletics, I feel proud to have done meaningful something	-1.65
6. Athletics is an activity with low risk of injury.	-1.95

3.2.3 제3유형: 기능 습득 곤란 인식형

Table 7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제3유형에 속한 중등에 비체육교사들의 육상운동에 대한 가장 높은 긍정적인 인식은 육상운동은 동작이 복잡해서 습득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Z=2.35$)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육상운동은 고도의 집중력을 필요로 한다($Z=2.06$), 육상운동은 교사교육에서 중요한 종목이다($Z=1.62$), 그리고 학교에서 육상운동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다($Z=1.4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다른 유형에 비해 가장 높은 부정적 인식은 육상운동은 노동이다($Z=-1.64$)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육상운동은 종목이 다양해서 다 잘할 수는 없다($Z=-1.62$), 육상수업은 전문기술의 습득보다 건강생활을 위한 활동이 중요하다($Z=-1.45$) 그리고 육상운동은 부상의 위험성이 낮은 활동이다($Z=-1.3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유형에 속한 응답자들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

“육상운동은 동작이 매우 복잡해서 기능과 동작을 습득하는데 어려움을 느껴요. 그리고 육상수업 시에 집중을 하지 않으면 부상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육상운동은 기초종목이고 동작이 어렵기 때문에 교사가 원리를 알아야 학생들을 잘 가르쳐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P14)”

“육상운동은 종목이 다양하고 종목 간에 동작이 완전히 다른 부분이 있어 동작의 복잡함을 느낍니다. 육상운동은 지구력 및 정신력 그리고 집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학교 체육수업에서 육상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P6)”

Table 7. Descending Array of Z-scores and Factor III

Q-Statement	Z-Score
16. Athletics is complicated & difficult to acquire	2.35
12. Athletics requires a high degree of concentration	2.06
27. Athletics is an important subject in teacher-would-be education	1.62
13. I have never learned athletics at school	1.46
20. Development of challenge tasks in athletics is important	-1.08
8. Athletics is good for losing weight	-1.21
6. Athletics is an activity with low risk of injury	-1.31
23. Activities for health life are more important than acquiring skill in athletics classes	-1.45
1. Athletics Is a variety of events & can not be done well	-1.62
7. Athletics is labor	-1.64

따라서 제3유형은 육상운동은 체육교사 교육에서는 중요한 종목이지만 배운 경험이 많지 않고 동작이 복잡해서 학습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진술문에 두드러진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어 ‘기능습득 곤란 인식형’으로 명명하였다.

3.2.3 제4유형: 기초 운동 가치 인식형

Table 8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제4유형에 속한 중등예비체육교사들의 육상운동에 대한 가장 높은 긍정적인 인식은 육상운동은 모든 활동과 운동의 기초이다($Z=1.53$)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육상운동은 체력소모가 많은 활동이다($Z=1.33$), 육상운동은 기록형 스포츠로서 도전의식을 갖게 한다($Z=1.23$), 육상운동은 모든 건강체력요소를 포함하고 있다($Z=1.21$) 그리고 육상운동은 재미있는 보조(강)운동이 필요하다($Z=1.1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다른 유형에 비해 가장 높은 부정적 인식은 육상운동은 교사교육에 중요한 종목이다($Z=-1.84$)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육상운동은 과제를 세분화하기 어렵다($Z=-1.63$), 육상운동은 동작이 복잡해서 습득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Z=-1.33$) 그리고 육상운동은 체력향상을 위한 트레이닝(훈련)을 필요로 한다($Z=-1.3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유형에 속한 응답자들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

Table 8. Descending Array of Z-scores and Factor IV

Q-Statement	Z-Score
3. Athletics is the basis of all activities & exercise	1.53
5. Athletics is a lot of physical fitness	1.33
2. Athletics is a record-type sport that gives you a sense of challenge	1.23
8. Athletics is good for losing weight	1.21
24. Athletics contain all health & fitness factors	1.21
19. Athletics requires fun assisting exercise	1.13
4. The speed of learning in athletics varies depending of the individual's function	1.02
28. Athletics has fun with shortening record	-1.23
17. Athletics requires training to improve physical fitness	-1.33
16. Athletics is complicated & difficult to acquire	-1.33
26. If there is study on athletics, I will participate	-1.44
15. Athletics is difficult to subdivide tasks	-1.63
27. Athletics is an important subject in teacher-would-be education	-1.84

“육상운동은 기본적으로 뛰어나고 해서 모든 운동의 기초라고 생각합니다. 더운 날에 뛰는 것은 체력소모가 크고 기본적으로 육상은 칼로리 소비가 많은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육상운동은 다이어트에 좋고 몸을 잡아 주는 게 달리기라고 생각해요. 달리기를 많이 하면 모든 근육을 쓰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에 좋고 이러한 운동은 건강에 좋다고 생각합니다(P25)”

“육상운동은 기록형 스포츠여서 도전의식을 갖게 하는 것 같아요. 육상은 뛰는 종목인데 뛰는 것은 신체활동에서 기초라고 생각해요. 육상운동은 약간 지루함이 있어서 재미를 가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P6)”

따라서 제4유형은 육상운동은 모든 활동의 기초이고

체력소모가 많으며 건강체력요소 및 도전의식을 갖게 한다는 진술문에 두드러진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어 ‘기초 운동 가치 인식형’으로 명명하였다.

3.3 모든 유형의 공통적인 인식

본 연구에서 탐색된 4가지 유형에서 공통적인 인식을 보인 진술문은 Table 9와 같다. 육상운동에 대해 예비체육교사들은 ‘개인의 기능에 따라 학습속도가 다르다’는 진술문에 공통적인 긍정적 반응을 나타냈다.

Table 9. Consensus Items

Q-Statement	Z-Score
4. The speed of learning in athletics varies depending of the individual's function	1.06

4. 논의

본 연구는 인간의 기초기본움직임과 기본체력 그리고 교육적 가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종목으로 여겨지는 육상운동에 대해 예비중등체육교사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통해, 육상운동에 대한 대학 교육과정을 반영함으로써 신체활동의 기본움직임인 육상운동에 대한 중등예비체육교사 교육의 내실화를 꾀하여 궁극적으로 중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육상운동의 효과를 높이기 위함이다. 연구결과 육상운동에 대한 중등예비체육교사의 인식은 4가지로 탐색되었다. 제1유형은 ‘교육적 가치 인식형’, 제2유형은 ‘보조 훈련 중요성 인식형’, 제3유형은 ‘기능습득 곤란 인식형’ 그리고 제4유형은 ‘기초운동 가치 인식형’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제1유형은 ‘교육적 가치 인식형’이다. 이 유형의 응답자들은 육상운동에 대하여 성취감 및 도전의식 그리고 인내심 고취, 리듬감과 기초운동으로서의 가치, 개인 간 학습속도의 차이 등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반응은 육상운동이 갖는 교육적 가치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육상운동을 통해 기록도전에 대한 활동을 제공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달성해 감으로써 성취감을 느끼며 이러한 과정은 학생들에게 자신과의 싸움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인내심을 기르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또한, 육상운동은 모든 활동과 운동의 기초라는 인식과 육상운동을 잘하기 위해서는 리듬감 또는 협응력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이러한 반응은 이 유형에

숙한 응답자들의 특징을 보면 육상수업 경험이 많고 육상수업에 대한 자신감과 운동기능이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분포한 점을 고려할 수 있다. 이는 많은 육상수업을 통해 육상운동을 경험하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 육상운동에 대한 효과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인식에 따른 태도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반응은 권성호, 성장훈[1]의 연구에서 육상수업의 재미 요인을 도전정신과 기능향상에 있다는 주장에 의해 설명된다. 또한, 김민성, 조건상[17]의 연구에서 수업내용의 흥미성은 육상수업만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에 의해 뒷받침된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의 응답자들에게는 다양한 난이도와 활동이 포함된 육상운동의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성취감과 도전의식을 북돋움으로써 육상운동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더하여 체육교사에게 필요한 수업방법지식[14]을 위한 과제를 제시하여 예비체육교사 교육을 위한 육상수업의 교육적 가치를 높여야 할 것이다.

제2유형은 '보조활동 중요성 인식형'이다. 이 유형의 응답자들은 육상운동에 대하여 체력향상을 위한 트레이닝(훈련)과 재미있는 보강(조)운동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또한, 육상운동이 다양한 종목으로 구성됨으로 인하여 모든 종목을 다 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육상운동은 자신과 싸움이라는 인식을 나타냈다. 이러한 반응은 육상운동을 잘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보조활동을 통한 훈련 또는 수련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육상운동이 기본적으로 전신운동체력이 요구되는 활동[18,19]이다. 이는 육상운동이 온전히 신체 중심의 이동을 통해 짧은 거리나 긴 거리를 빨리 달리고, 높이 그리고 멀리 뛰며 신체를 이용하여 기구를 멀리 던지는 것으로서, 육상운동을 잘하기 위해서는 인체 지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체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육상운동과 관련한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기초체력 강화 훈련을 통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윤창기[20]의 주장은 이 유형의 반응을 지지한다.

또한, 육상운동은 다른 운동에 비해 재미 요소가 부족하다. 이러한 재미 저해요소는 반복연습, 동작의 어려움, 체력적 부담, 부상의 위험[1] 등에 의한다. 따라서 육상운동의 일련의 학습 과정에서 학생들의 인내심이 요구되고 이는 자신과 싸움으로 표현되고 있다. 이 유형의 응답자들은 육상수업 경험이 많지 않고 육상수업에 대한 자신감과 운동기능이 중간 수준의 특성을 나타낸다. 이들은 육상수업에서 고려해야 할 점으로는 육상활동 수행의 원리 이해 및 정확한 자세의 중요성, 체력향상 그리고 수업

시의 과제설계 등을 강조하여 적극적인 육상수업 참여를 통한 육상지도 능력을 배양하는데 강한 의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육상운동에 재미와 흥미를 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재미있는 보조(강) 활동을 구안하여 수업에 적용함으로써 학생들의 참여 동기를 높이고 육상수업의 효율성을 높일 것을 강조한다.

제3유형은 '기능 습득 곤란 인식형'이다. 이 유형의 응답자들은 육상운동에 대하여 동작의 복잡성으로 인해 습득이 곤란하고 고도의 집중력을 요구하는 등 기능 습득의 어려움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육상운동이 교사교육에서 중요한 종목이나 학교에서 제대로 배워보지 못했다는 의견을 보인다. 이러한 반응은 교사교육에서 육상운동이 중요하지만 동작이 복잡해서 배우는 데 어려움이 있고, 부상 등이 발생할 수 있어 고도의 집중력을 요구된다는 인식으로 해석된다. 또한, 중고등학교 학창 시절에 육상운동을 제대로 배워보지 못했다는 불만의 표현이기도 하다. 이 유형의 응답자들은 육상수업 경험이 적고 육상수업에 대한 자신감과 운동기능이 중간 이하의 수준이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육상수업에서 고려해야 할 점으로는 안전을 강조하였다. 이 유형의 응답자들은 육상운동에 매우 피동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그 이유로는 육상수업에 대한 경험의 부족과 자신의 운동기능 부족 그리고 부상 위험에 대한 두려움 등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김방출[12]의 연구에서 육상수업에서 스트레스 요인은 유능감과는 부적인 상관을 보이고 긴장감이나 불안과는 정적 상관을 보인다는 주장에 의해 설명된다. 즉, 육상수업에 대한 경험 부족과 운동기능 부족은 유능감을 낮추고 긴장감과 불안을 높여 수업 스트레스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부상과 같은 예비교사교육에서의 부정적 경험은 학교 현장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13,21]는 주장은 부상 등의 염려로 그렇지 않아도 복잡한 육상수업에 소극적 참여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유형의 학습자에게는 안전이 보장된 수업 환경을 만들고 아주 쉬운 과제에서 점차 복잡한 과제로의 전환을 전개하여 학생들의 참여도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제4유형은 '기초 운동 가치 인식형'이다. 이 유형의 응답자들은 육상운동에 대하여 모든 활동과 운동의 기초이고 체력소모가 많은 활동으로 여기고 있다. 더하여 육상운동은 기록형 스포츠로서 도전의식을 갖게 하고 모든 건강체력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반응은 육상운동은 모든 활동의 기초가 되는 중요

한 종목이며 학교 교육에서 학생들에게 도전 가치를 학습할 수 있는 종목으로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육상운동이 모든 건강 체력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는 인식을 나타낸 것은 건강 교육을 중요시하는 학교 교육에서 육상운동의 가치를 높게 여기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유형의 응답자들은 육상수업 경험이 적고 육상수업에 대한 자신감과 운동기능이 중간 이하의 수준을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상운동에 대한 기본 가치와 중요성에서는 매우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이러한 태도는 자신들은 육상운동에 대한 신체 능력은 다소 낮지만 육상 종목이 갖는 기본 가치에 대한 중요성은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은 육상운동이 모든 운동의 토대[12]이고 기초 종목[2]으로서 다른 종목에의 전이가가 매우 높다[3]는 선행연구의 주장에 의해 지지된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의 응답자들에게는 육상운동 기능 향상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육상운동이 가지고 있는 기본 가치 및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낮은 수준에서 요구되는 활동 및 지도방법 그리고 이해중심 게임 수업 등의 변형게임을 중심[22,23]으로 지도내용을 구성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학습자들이 육상운동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고 육상운동이 가진 기초 운동으로서의 가치를 인식하게 하여 중등예비체육교사에게 요구되는 기초·기본 활동에 대한 지식을 배양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움직임의 기초 종목으로 여겨지고 있는 육상운동에 대한 예비중등체육교사들의 인식을 탐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는 체육교육에서 전이가가 높은 육상운동이 예비교사들에게 어떠한 활동으로 인식되는지를 파악함으로써 교사교육에서의 육상수업에 대한 반성과 향후 개선점을 찾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인간의 주관성을 탐색하기에 적합한 Q방법론을 활용하여 결과를 분석하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먼저, 육상운동에 대한 예비중등체육교사들의 주관성은 4개로 나타났다. 각 유형별 P-표본의 분포는 <유형 I>은 총 16명으로 남학생이 14명, 여학생이 2명으로 분포되었고, 육상수업경험이 많고 육상수업에 대한 자신감과 운동기능이 좋은 편의 학생들로 구성되었다. <유형 II>는 총 7명으로 남학생 4명, 여학생 3명으로 분포되었고, 육상수업경험과 육상수업에 대한 자신감 및 운동기능은 중간 수준의 학생들로 구성되었다. <유형 III>은 총 3명으

로 육상수업경험과 육상수업에 대한 자신감은 중간 또는 그 이하의 수준으로 나타났고, 운동기능은 중간 정도의 학생들로 구성되었다. <유형 IV>은 육상수업경험과 육상수업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운동기능이 중간 수준의 학생들로 구성되었다.

다음으로, 육상운동에 대한 중등예비체육교사의 인식 유형별 특성을 보면, <유형 I>은 육상운동에 대하여 성취감을 느끼게 해 주고 리듬감이 중요하며 기록형 스포츠로서 도전의식을 갖게 한다는 진술문에 두드러진 긍정적 인식을 보여 '교육적 가치 인식형'으로 명명하였다. <유형 II>는 육상운동에 대하여 체력향상을 위한 트레이닝과 재미있는 보조(강)운동의 필요성 등에 의미 있는 반응을 보여 '보조활동 중요성 인식형'으로 명명하였다. <유형 III>은 육상운동에 대해 복잡한 동작 구성에 따른 습득의 어려움과 높은 집중력의 요구 그리고 학창시절 육상운동에 대하여 학습경험 부족 등의 진술문에 긍정적 반응을 보여 '기능 습득 곤란 인식형'으로 명명하였다. <유형 IV>는 육상운동에 대해 모든 활동과 운동의 기초이고 기록형 스포츠로서 도전의식을 갖게 하며 모든 건강체력요소를 포함하는 운동이라는 인식을 보여 '기초 운동 가치 인식형'으로 명명하였다. 이러한 유형 형성은 대상자의 육상수업경험과 육상수업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운동기능 수준에 따른 것으로 해석되었다.

본 연구는 육상운동에 대한 중등예비체육교사의 인식을 탐색하였다. 대상자의 육상수업경험과 육상수업에 대한 자신감의 정도 그리고 운동기능 수준에 따라 다양한 태도를 나타내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중등예비체육교사 교육에 있어서 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흥미로운 육상활동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수업 내용 및 지도방법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육상운동과 관련하여 재미있는 보조 보강 운동과 육상 동작의 협응력을 향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은 육상운동의 일반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수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중등예비체육교사를 대상으로 육상운동에 대한 인식을 탐색하였다. 따라서 연구대상자의 제한으로 인해 육상운동에 대한 학교 현장의 현상을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현직 교사를 대상으로 한 육상운동에 대한 인식 탐색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REFERENCES

- [1] S. H. Kwon & C. H. Seong. (2008). The Change of Track & field Classes' Enjoyment and Intrinsic Motivation through Psychological Skill Training. *Korean Journal of Sport Psychology, 19(2)*, 97-113. <http://www.ksssp.or.kr>
- [2] Y. S. Lee. (2008). Policy alternatives for Athletics development in Korea. *Korean Journal of Sport Science, 19(2)*, 117-124. 10.24985/kjss.2008.19.2.117
- [3] J. H. Lee & Y. S. Yu. (2017). The high School Athletes' Acceptance Attitude of Coaching Behaviors. *The Korea Journal of Sports Science, 26(4)*, 601-612.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234209>
- [4] S. N. Choi. (2015). Comparison and Kinetic Analysis is Starting Speed Contribute Start for College Student Athletics Major.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5(4)*, 599-616. http://image.kyobobook.co.kr/dwas/images/scholar/ns_url_01.jpg
- [5] S. H. Lee. (2013). The Kinematical Analysis of Supported Athlete's Technical Motion in Javelin Throw. *Korean Journal of Sport Biomechanics, 23(1)*, 001-009. <http://www.kssb.or.kr>
- [6] H. J. Son. (2019). Comparison of Isokinetic Peak Torque and Peak Torque Angle of Knee Joint in Female Runners. *The Korean Journal of Sport, 17(4)*, 1651-1657. <http://lps3.www.earticle.net.libra.cnu.ac.kr/Article/A367112>
- [7] N. Y. Ahn, J. S. Park & K. J. Kim. (2016). The relationship cardio-pulmonary function and resting heart variability in analysis of endurance training effects. *Journal of Coaching Development, 18(4)*, 79-84.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171825>
- [8] S. B. Ju & J. T. Kim. (2017). Respiratory and Circulatory Function & Removal of Lactate During Exercise and after Exercise in Elite Male Middle Distance Runners. *Sport Science, 34(2)*, 107-118. I410-ECN-0102-2018-600-000447448
- [9] S. I. Kim & B. C. Jung. (2015). Relationship among Sport Psychological Skills and Sport Confidence and Perceived Performance in Track and Field Athletes. *Journal of Sport and Leisure Studies, 59*, 547-560. <http://www.kssls.org>
- [10] M. S. Kim. (2018). A Case Study on the Effect of Sports Psychological Training and Psychological Counseling in the Middle School Athlete.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Physical Education and Sport for Girls and Women, 32(3)*, 21-37. <http://www.phywomen.or.kr>
- [11] S. H. Jung. (2005). Promotive and Interruptive Sources of Enjoyment in University Field and Track Events Class. *Journal of Sport and Leisure Studies, 23*, 89-99. <http://www.kssls.org>
- [12] B. C. Kim. (2009). The Effect of Elementary Pre-service Teachers' Stress on Track-and-Field Class on Their Intrinsic Motivation about Teaching Physical Education. *The Korean Journal of the Elementary Physical Education, 15(2)*, 125-133. <http://lps3.www.earticle.net.libra.cnu.ac.kr/Article/A135731>
- [13] D. Y. Kim & J. W. Kim. (2019). A Study on the Exercise Injury of Girls in the Athletics Class at the University of Education. *The Korea Journal of Sports Science, 28(1)*, 795-808. 10.35159/kjss.2019.02.28.1.795
- [14] C. S. Yoon & H. S. Kim. (2015). Formation and Types of Teaching Professionalism in Practice Professors of Athletics Major. *The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54(6)*, 161-173. <http://www.kahperd.or.kr>
- [15] Y. S. Yu. (2018). The Study on the Convergence Perception of College Students for the Physical Education.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9(7)*, 125-133. <http://lps3.www.earticle.net.libra.cnu.ac.kr/Article/A333810>
- [16] H. G. Kim. (2008). *Q Methodology: Philosophy, Theories, Analysis, and Application*. Communication Books: Seoul.
- [17] M. S. Kim & G. S. Cho. (2018). An Analysis of the Importance and Satisfaction of Selected Attributes of Professional Athletic Instruction. *The Korean Journal of Sport, 16(4)*, 451-459. <http://lps3.www.earticle.net.libra.cnu.ac.kr/Article/A344147>
- [18] B. J. Sung & Y. S. Lee. (2011). An Examination of Basic and Specific Fitness of Elite National Throwing Athletes(Javelin, Shot Put, Discus, Hammer Throwers). *Korean Journal of Sport Science, 22(3)*, 2220-22236. I410-ECN-0102-2012-360-002274437
- [19] J. H. Lee, M. S. Lee, S. J. Heo & J. M. Park. (2018). Effects of Functional Balance on Balance Ability and Functional Exercise Performance Abilities in Throwers. *The Korea Journal of Sports Science, 27(2)*, 985-995.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428506>
- [20] C. K. Yoon. (2006). Effects of Reinforced Exercise Program to Capacity of Track and Field Locomotion.
- [21] Y. S. Lee & S. W. Bang. (2011). The Relationship between Elementary Pre-service Teacher's Stress and Required Courses in Physical Education. *The Journal of the Elementary Physical Education, 16(3)*, 51-59.

<http://www.riss.kr.libra.cnu.ac.kr/link?id=A103745698>

- [22] W. J. Choi & J. H. Kim. (2004). An Analysis of Participation in Physical Education of Low Skilled Girl on Sport Education. *The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43(5), 217-227.

<http://www.kahperd.or.kr>

- [23] Y. J. Jang. (2018). A Narrative Inquiry on Physical Education Class Activity Experience by the Low-skilled Male Student of Middle School. *The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57(2), 151-168.

<http://www.kahperd.or.kr>

유 영 설 (Young-Seol Yu)

[정회원]



- 2011년 2월 : 충남대학교 (이학박사)
- 2017년 3월 ~ 현재 : 수원농생명과학고등학교 교사
- 관심분야 : 체육교육, 체육행정/경영, 육상운동
- E-Mail : yssports4u@hanmail.net